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4
----------	-----

발의연월일 : 2020. 6. 8.

발 의 자 : 도종환 · 김영주 · 박 정
김철민 · 이정문 · 안민석
기동민 · 조승래 · 임호선
김원이 · 변재일 · 이원택
김병기 · 이상현 · 정정순
민홍철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항, 객차, 선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 등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한편, 이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가 갖추어진 시설의 경우에도 안내가 부족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사용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큰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의 부착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2, 같은 조 제4항 및 제62조제1항제3호의5 신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지정·승인 등을 거쳐 관리·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62조제1항에 제3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5. 제4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 6. (생략) <u><신설></u> 7. (생략) ②·③ (생략) <u><신설></u> ④ (생략)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지정·승인 등을 거쳐 관리·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62조(과태료) ① -----

<p>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3의4. (생략)</p> <p><u><신설></u></p> <p>4. ~ 6. (생략)</p> <p>② (생략)</p>	<p>-----</p> <p>-----</p> <p>-----.</p> <p>1. ~ 3의4. (현행과 같음)</p> <p><u>3의5. 제4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u></p> <p>4. ~ 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